



홍콩, 보험연계증권(ILS) 활성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

김유미 연구원

홍콩 정부는 보험연계증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홍콩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 리스크 이전 거래의 허브로 도약하고자 함. 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연계증권 거래의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보험회사를 보험회사의 범주에 추가하고 최소자본 요건을 부여함. 홍콩의 보험법 개정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보험연계증권 거래 확대를 통해 아시아 지역 보험연계증권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5월 홍콩 정부는 보험연계증권(Insurance-linked Securities)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홍콩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지역 리스크 이전 거래의 허브로 도약하고자 함

- 보험연계증권(Insurance-linked Securities)은 보험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이전하는 거래로서 전통적 재보험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며, 대표적으로 대재해채권(Cat Bond) 거래가 활발함
 - 넓은 의미의 보험연계증권은 보험과 관련된 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모든 수단(채권, 스왑, 파생상품, 재보험 계약)을 의미함
- 홍콩이 보험연계증권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중국 보험회사들의 자본시장 리스크 이전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중국 보험회사들의 글로벌 재보험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아시아지역 리스크 이전 거래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함임
- 홍콩은 2018년 10월 보험연계증권 활성화를 위해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s; SPV) 설립을 자유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¹⁾ 이번 보험법 개정으로 이어짐

■ 홍콩 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연계증권 거래의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보험회사(SPV)를 보험회사의 범주에 추가하고 최소자본요건을 부여하며, 캡티브 보험회사(Captive Insurer)의 거래 제약도 완화함

- 보험연계증권 거래를 위해서는 리스크를 전가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와 리스크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본시장 투자자가 필요하며, 이를 중개하는 특수목적회사의 설립이 자유로워야 함

1) HKSAR(2018. 10), "The Chief Executive's 2018 Policy Address-Striving Ahead Rekindling Hope"

- 홍콩의 보험법 개정안은 특수목적사업을 보험사업의 새로운 범주(특수목적보험회사(Special Purpose Insurer))로 추가하고, 특수목적보험회사의 최소자본요건을 설정함
- 또한 지금까지 ILS 펀드, 헷지 펀드 등의 적격기관투자자와의 사적거래로 국한해왔던 보험연계증권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추가적인 거래 규정을 도입할 예정임
- 한편, 보험회사의 자회사로써 모회사의 리스크만 취급 가능했던 캡티브 보험회사의 리스크 취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캡티브 보험회사를 통한 리스크 거래 제약도 완화함

■ 보험연계증권 거래는 버뮤다를 중심으로 고성장하고 있는데, 버뮤다의 경우 발 빠르게 관련법을 개정하고 거래 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임

- 2018년 글로벌 보험연계증권은 발행규모는 5,850억 달러로 2017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두 배 가량 성장함²⁾
 - 2008년에는 보험연계증권 거래 중 대재해채권 거래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전통적 재보험과 유사하게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보장하지만 담보가 제공되는 1년 단기 거래인 담보부 거래(Collateralized Reinsurance)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보험연계증권 거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버뮤다로 전 세계 거래의 약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³⁾ 다음으로 케이먼 군도, 아일랜드의 비중이 높고 기타지역으로 영국과 싱가포르 등이 있음
- 버뮤다에서 보험연계증권 거래가 활발한 이유는 버뮤다의 경우 2009년 보험연계증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였고,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한 달내에 승인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있기 때문임

■ 홍콩의 보험법 개정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보험연계증권 거래 확대를 통해 아시아 지역 보험연계증권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폴은 2018년 버뮤다와 유사한 법 개정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보험연계증권 거래 활성화에 나서면서 성장하고 있으나,⁴⁾ 아직까지 버뮤다와 같은 글로벌 시장과 경쟁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임
- 그러나 홍콩의 경우 중국과 같은 거대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싱가폴에 비해 초기 시장 확대가 용이한 측면이 있고, 지속적으로 거래 경험이 축적될 경우 아시아 지역 보험연계증권 거래 활성화에 기여가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kiri**

2) AON(2019), "Insurance-Linked Securities: Alternative Capital Breaks New Boundaries"

3) International Insurance Society(2017. 7), "Insurance-Linked Securities in Hong Kong - Unlocking the potential"

4) Reinsurance News(2019. 7. 17), "Singapore is fast maturing as a viable ILS domicile", says Monetary Authority exec